

“우리가 불우이웃이냐…日 사죄없는 배상 필요없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문화상 의장 ‘정부도 자금 지원’ 제안 유감
3·1운동 100년, 광주학생독립운동 90년의 해 역사의식 부재 아쉬워

“눈물만 나오지. 죽어라 고생만 시키고 사회 한마디 없으니.. 너무 억울해”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6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상 국회 의장의 일본 와세다대학교 특별강연 발언 내용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이들은 또 올해가 항일의 상징인 3·1독립운동 100년이자 광주학생독립운동 90주년인 역사적인 해인데도, 바뀌지 않는 정치권의 역사의식 부재 등을 지적했다.
6일 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 5일 G20 국회의장 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문화상 국회의장은 와세다대학교 특별강연에

서 “한일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입법적 노력이 의회 지도자의 책무”라며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해법으로 ‘1+1+α’ 기금설립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1+1+α’ 기금 설립안은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위자료를 지급하는 ‘1+1’ 방식에서 한발 물러나 정부도 자금을 보태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측은 “과연 이 제안이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장의 목소리가 맞는 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해자들은 전범기업에게 불법행위의 책임을 묻고 법원은 가해자에게 손해배

상 지급을 명했는데 왜 우리 국민에게 그 돈을 받아야지 하는 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이어 “최근 지소미아 종료기한이 임박해함에 따라 연장하기를 원하는 미국의 정부 압박 심하고 한국 정부도 부담감도 심한 것으로 안다. 이런 분위기에 서 최근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지만 정부가 제안한 방식의 배상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시민모임은 2015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한다며 일본 정부의 사과 없이 10억 엔을 받았다가 거센 비판이 일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사과가 포함되지 않은 방법은 그 어떤 것도 올바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근로정신대 피

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 사실은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사죄 한마디 없다는 것은 우리가 나이가 많으니 빨리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 아니겠느냐”며 “일본 정부는 하루 빨리 우리 앞에 사죄하고 책임감 있는 배상을 바란다”고 분노했다.
이국언 시민모임 대표는 “문 의장은 강제징용 피해 해결을 불우이웃돕기와 동일 시하고 있는 듯 하다”며 “돈 문제가 아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정신을 훼손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모임 자문위원인 장현권 목사는 “문 의장의 발언은 3·1독립운동 100주년, 학생독립운동 90주년을 맞은 해에 어울리지 않은 발언”이라며 “쫄봄 혁명으로 태어난 정부가 민심을 잘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59 달뜨기 15:10
해질 17:33 달지기 01:42

깊어가는 가을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다.

광주	맑음	9/18	보성	맑음	7/18
목포	맑음	11/17	순천	맑음	10/19
여수	맑음	12/19	영광	맑음	9/17
나주	맑음	6/18	진도	맑음	11/17
완도	맑음	11/18	전주	맑음	9/17
강진	맑음	9/19	남원	맑음	7/17
해남	맑음	7/18	흑산도	맑음	13/17
장성	맑음	7/17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서~북	0.5~1.5	북서~북	0.5~2.0
남부 먼바다	북서~북	1.0~2.0	북서~북	2.0~3.0
남해 앞바다	북서~북	0.5~1.0	북서~북	0.5~1.0
서부 먼바다(동)	북서~북	0.5~1.5	북서~북	1.0~2.0
서부 먼바다(서)	북서~북	1.0~1.5	북서~북	1.0~2.0

◇물때

	간조	만조
	04:07 16:09	10:31 23:06
목포		
여수	00:03 11:47	05:56 18:27

◇주간 날씨

8(금)	9(토)	10(일)	11(월)	12(화)	13(수)	14(목)
5/16	5/17	5/17	11/17	8/18	7/17	5/14

◇생활지수

	관심
	보통
	보통

“강동완 전 총장 해임·신임 총장 조속 임명을”

조선대 전 총장·보직자 82명

교원심사위에 탄원문 제출키로

조선대학교 전임 총장과 주요 보직자들이 교육부 교원소정심사위원회에 강동완 전 총장의 해임과 신임 총장의 조속한 임명을 요청하는 탄원문을 제출할 예정이다.
6일 조선대에 따르면 김주현 전 총장(제13대)과 임병대 명예교수와 회장, 강정석 전 인문대학장 등 전임 총장들과 주요 보직자 82명이 조만간 교원소정심사위원회에 탄원문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지난 9월 이뤄진 법인 이사회의 강동완 전 총장 2차 해임에 대한 교육부 교원

소정심사위원회 결정을 앞두고, 법원 판결로 보류된 신임 총장에 대한 임명을 조속히 진행해 더 늦기 전에 대학 안정을 꾀하는 취지로 일한다.
전임 총장과 보직교수들은 탄원문에는 “전국 모든 대학이 사황을 겪고 교육부 평가를 준비하고 있을 때, 강 전 총장은 2년 동안 무려 부총장 4명에 더 많은 수의 실·처장 교체인사를 단행해 학교행정을 마비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교육부평가에서 탈락한 다른 대학 총장들과 보직자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모두 스스로 물러났다”며 “그러나 강 전 총장은 ‘왜 나만 책임져야 하느냐’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남구 을 최고 정책사업, 주민이 직접 뽑는다

22일까지 ‘구정 베스트 5 선정’

광주시 남구는 6일 “2019년 올해의 구정 베스트 5”를 선정하기 위한 모바일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는 투표는 남구청 모바일 투표 시스템인 ‘남구 엠보팅’을 통해 진행된다.
남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투표에 참가하고자 하는 주민은 스마트폰 플레어 스토어 또는 엠 스토어에서 ‘남구 엠보팅’을 검색해 관련 앱을 내려 받은 뒤 투표에 참여하면 된다.
남구는 주민 평가 70%와 공무원 평가 30%를 반영해 구정 발전 및 주민 복지 등 각종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정책 5가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투표 대상에 오른 정책은 1차 예비심사를 통과한 ▲수영선수권 대회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10분 안에 만나는 우리동네 생활SOC 복합화 사업 ▲2019년 전통시장 활성화 축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남구 365스마트 도서관 개관 ▲행복한 복지 7979센터 운영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추진 ▲방역지도를 활용한 모기 제로화 구축 등 8건이다.
남구는 주민 및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정책의 우수성 및 파급성, 효과성 등을 심의해 구정 베스트 정책 5가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김한영 기자 young@



첫술질 이렇게 하세요

6일 광주 북구청 광장에서 열린 ‘차아사랑 구강보건 캠페인’에 참가한 북구보건소 직원들이 북구청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올바른 첫술법과 구강건강 관리법 등을 설명해주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독도경비대원 사용 추정 대검 발견

호남대 독도탐방단

독도에서 탐방활동을 벌이던 호남대학교 ‘2019 독도탐방단’이 독도 영토표식 앞에서 초창기 독도경비대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검(사진)을 발견했다.
호남대 2019 독도탐방단은 이날 독도 선착장 일원에서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에 맞서 독도지킴기에 나섰던 독도경비대의 발자취를 따라 답사를 하던 중, 독도 영토표식 주변에서 심하게 녹슬어 산화돼가는 대검 1개를 발견했다.
독도수호대 김점구 대표는 “이 대검은 1955년부터 독도 상주경비를 시작한 독도경비대원들이 사용한 대검으로 추정된



다”고 밝혔다. 또 “당시 경비대원들의 유물 유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주 귀중한 사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문기관에 의뢰해 대검의 제작시기, 제원 등을 조사해 독도경비대와의 연관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시 북구 환경개선부담금 수납시스템 구축

광주시 북구가 예산 1000만원 절감과 주민 불편 해소 및 업무효율성 높이는 환경개선부담금 실시간 수납시스템을 구축했다. 북구는 “지난 8월부터 광주는 행, 새울행정시스템 사업단과 협업해 환경개선부담금 실시간 수납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북구는 예산 절감, 주민 불편해소 및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광주은행, 새울행정시스템 사업단과의 연계성 검토 등을 거쳐 가상계좌 이용 수수료가 없는 실시간 수납시스템 구축을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마쳤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방치된 묘지 70%(추정)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062-412-2800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함평수목장
함평군 대동면 소재
광주화장장에서 46km(약 50분 소요)
목포화장장에서 39km(약 35분 소요)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순천화장장에서 52km(약 50분 소요)